

2) 구청별 등록업체 현황

(2008. 4. 15현재)

구 청	등 록 수		업체수	구 청	등 록 수		업체수
	기계설비	가스시공업			기계설비	가스시공업	
강 남	191	31	205	용 산	29	4	33
서 초	162	22	167	강 서	52	11	59
영등포	114	20	125	중 구	31	8	34
송 파	113	18	120	중 로	23	7	25
구 로	109	19	122	동 작	23	7	29
동대문	64	17	74	중 랑	21	14	31
마 포	66	14	75	서대문	14	5	18
성 동	47	10	54	은 평	26	7	30
관 악	32	11	37	성 북	22	4	25
광 진	34	8	41	도 봉	15	9	23
강 동	45	13	55	노 원	10	11	19
금 천	97	11	105	강 북	11	6	16
양 천	32	13	41	합 계	1,382	299	1,563

2. 서울특별시회에서 하는 일

1)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과 이익증대를 위한 무료 자문위원 운영

①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건설업 법률분쟁 및 노동관련 문제 등의 회원사 애로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함.

② 자문위원 현황

구 분	법률자문	노무자문
성 명	권진웅 변호사	이덕조 노무사
상담내용	- 건설관련 법률소송 - 건설클레임 - 기타법률 애로사항	- 노동관계 법률상담 - 인사노무관리 실무 - 산재사고 및 분규조정
연락처	02) 2602-8899	02) 3453-5533

2) 산학협력 사업 추진

- ① 회원사의 설비기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폴리텍 I 대학과 두원공과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설비기술 관련 위탁교육 및 자격취득 교육 실시
- ② 한국폴리텍 I 대학 산학협약을 체결(2007. 1) : 건축설비 CAD 및 적산교육 등을 실시하여 2005년부터 7차에 걸쳐 400명 교육수료로 인원 배출
- ③ 두원공과대학 산학협력을 체결(2007. 2) : MBTI적성분석, 리더쉽 함양 등 직무연수 교육을 2박3일간 실시, 183명 수료

3) 설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 ① 설비건설기술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8개 대학 건축설비관련 학과 재학생들에게 상·하반기 장학금을 지원
- ② 장학사업 대학 : 경원전문대학, 대림대학, 두원공과대학, 수원과학대학, 유한대학, 신홍대학, 용인송담대학, 한국폴리텍I대학 등
- ③ 장학금 대상자 : 연간 34명, 장학금 지급액 : 연간 3천만원

4)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수행

- ① 정부의 위탁업무인 설비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신고 등의 처리 업무 및 정부공사 입찰 적격심사 자료의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위탁업무 수행의 대외공신력을 제고
- ② 관내 1,200여개 업체 4조원 규모의 기성실적(공사건수 : 4만여건)공사와 약 6천여명의 기술인력, 정기결산서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업무 수행
- ③ 건설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확보를 위해 도입된 인정기능사 경력인정제도를 공정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하여 제1회 ~ 제20회 까지 1,640명의 인정기능사 최종 합격자 배출

5)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 ① 1995년부터 현재까지 106개 분리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공품질을 점검하여 품질향상을 계도함으로써 분리발

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② 매년 6개 현장을 방문하여 공장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계발전을 개선토록 권고하고 우수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또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총회에서 포상함.

6) 회원사 각종 교육지원사업 추진

- ① 회원사 경영지원 교육에 역점을 둔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여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 효율 증진을 도모
- ② 건설계약클레임, 건설공사 노무실무, 건설관계법령해설, 입찰·계약 제도실무, 건설공사 실적신고교육 등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여 회원사 임·직원 2,319명 교육 실시

7) 회원중심의 서비스 향상과 설비건설 한 가족 운동 전개

- ① 신속한 회원정보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업무의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하여, 회원사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하여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봉사 운동 실시
- ② 회원사의 결속력을 높이고 설비건설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표회원사를 대상으로 등반대회 및 경영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사간 우호와 친목을 다지는 설비건설 한 가족 운동 전개

3. 서울특별시회 공사 수주환경

1) 2006년도 기성실적 현황

우리업계 전체 회원사의 2006년 기성실적은 전년도 9조 4,065억원 보다 6.4% 증가한 10조 126억원이며, 그 중에서 서울지역 업체가 수주한 기성실적은 4조 4,140억원으로 전국 설비건설업체의 44.1%를 차지한다.

2) 원·하도급 비율

서울지역 업체의 원·하도급 비율은 27.8% : 72.2%로 전

국 평균 40.4% : 59.6%를 비교해 볼 때 하도급 수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지역 업체가 원도급공사 보다 하도급공사 비율이 높은 것은 주요 일반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우수한 서울지역 설비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분리발주 현황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기업에서 발주공사는 전년도 6,129억원보다 3.7% 감소한 5,908억원으로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물량은 834억원으로 전년도 825억원 대비 1.1% 증가하였다.

4) 2007년 기성실적 현황

2007년도 서울지역 회원사 1,173개 업체가 신고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분석해 보면 4조8,180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교해 9.2%가 증가했다.

설비건설업체 평균 기성액은 25억4천만원이며, 서울지역 업체의 평균 기성액은 41억3천만원으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공사실적 신고를 한 1,173개 업체 중 79%인 926개 업체가 평균 41억3천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설비건설업체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수주경쟁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사수주는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공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1억원 미만업체도 112개사로 아직도 영세한 설비건설업체가 상존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최근 설비건설업 수주환경

최근 들어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 선정 시 소위 '비교견적' 을 통한 최저가 중용과 이에 편승한 일부 회원사의 제살까기식 덤핑수주 등으로 설비건설업체 전체의 수급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수주질서 또한 난무하고 있다. 더구나 시공참여제도 폐지와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회원사의 공사수익 구조는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6) 건설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급변하는 수주환경에 대처하고 회원사 경영난 타개를 위해 서울지역 일반건설사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을 협조 요청하는 등 회원사의 권익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덤핑수주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제값받기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만이 총체적 난국을 이겨내는 길임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수주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4. 서울시회의 주요 발주기관 현황 및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현황

1) 주요 발주기관 현황

① 서울지역 분리발주 기관은 서울시·구청, 서울시교육청·구교육청, 서울시 산하 공기업(SH공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KT자산관리센터,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이 있다.

2)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 ① 모든 정부 공공공사 300억원 이상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적용되고, 교육청공사도 BTL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관내 설비건설공사의 분리발주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② 2005년 5월 서울시에서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주택건설분과위에 적극 참여하여, "기계설비분리발주 활성화"를 건의해 서울시로부터 관내 중·소 전문업체의 전문성 및 보호육성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 ③ 서울특별사회는 서울시 관내 주요발주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설비건설공사 분리발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건의하고 있다.
- ④ 최근 2년간 관내 발주기관으로부터 약 1,100억원의 기계설비건설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했다. ●

미니인터뷰 - 정해돈 서울특별시회 회장

‘작지만 내실있고 강한 서울사회’를 만들 터

전국 시·도회 중 가장 많은 회원사가 분포되어 있는 서울사회는 ‘설비업계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업계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발전이 곧 서울사회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본회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8명의 사무처 직원이 ‘회원사가 최우선’이라는 모토로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 ‘설비건설 발전방안’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으며, 주변환경 또한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올해부터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고, 우리업계도 4년 후면 겸업제한 폐지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정해돈 서울특별시회 회장

우리업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화된 설비건설업계로 발돋움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설비건설업의 제2 도약을 위한 ‘설비건설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사회 회원사 역시 본회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설비업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

서울사회는 또 회원사의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서울사회 회원사가 수주한 계약실적은 4조원 대로 전국 회원사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하도급 비율은 30 : 70으로, 대부분의 회원사는 아직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도급 구조는 일을 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서울시

“전 회원사 임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다양한 위탁교육 실행과 후진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 활성화, 시공품질 점검 활성화로 부실시공 없는 서울시회가 되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덤핑수주 근절 캠페인’ 을 통해 수주환경 개선과 우리업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작지만 내실있고 강한 서울시회’ 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는 본회와 함께 분리발주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부, SH공사 등 많은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 수주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되면서 분리발주 수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산·학협력 적극 지원-전 회원사 임직원의 자격증 취득 목표

서울시회는 회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비관련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무료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작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사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어 위탁교육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회는 ‘전 회원사 임직원의 자격증 취득’ 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위탁교육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의 전문지식 함양으로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장학사업은 후진 양성의 지름길

과거에는 설비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되었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설비학과를 졸업해도 우리업계로 유입되는 인구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10% 중 1년 후에는 1%만 남는다는 어느 교수의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업계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업계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회의 장학사업은 우리업계를 알리는데 산과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여 학생들이 선망하는 설비건설업계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서울시회는 지난 95년부터 분리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시작된 이 시공품질점검은 발주처의 인식전환 효과와 함께 성실시공에 대한 책임감 부여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공품질 점검을 더욱 활성화 하여 부실시공이 없는 서울시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덤핑수주 자제토록 캠페인 벌일 터

어려운 수주환경과 더불어 덤핑수주는 우리업계를 더욱 사지로 몰아 넣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임기간 동안 회원사들이 덤핑수주를 자제토록 ‘덤핑수주를 근절하자’ 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아울러 등반대회, 경영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의 친목도모와 열린 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내실있고 강한 서울시회’ 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